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 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방법론의 융합적 접근

박성주¹, 김명아^{2*}

¹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 ²차의과학대학교 간호대학

Convergent Approach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bout Male Nurses' Adaptative Experience at PACU

Sung-Joo Park¹, Myung-Ah Kim^{2*}

¹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CHA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CHA University

요 약 연구의 목적은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05월부터 2021년 05월까지였으며 종합병원 회복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모음, 21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범주는 '간호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의 자리매김'으로 구조화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들의 임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실무 현장에서 이들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남자간호사, 적응, 회복실, 질적연구, 현상학, 융합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male nurses working in PACU. Methods: A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ix participants. Colaizzi's phenomenology has been adapted as a research method in this qualitative study. Results: 4 categories, 9 theme clusters, and 21 themes were identified. The 4 categories derived from the data as follows: 'Beginning my career in nursing', 'Facing difficult reality', 'Striving to survive', 'Full adjustment in the workplace' Conclusion: These results could help to exp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male nurses working in the PACU. In additions, the results could help basic data for men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and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Male nurse, Adaptation, PACU, Qualitative research, Hermeneutic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Myung Ah Kim(myungahk@cha.ac.kr)

Received October 14, 2021

Accepted January 20, 2022

Revised November 23, 2021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남자간호사 2만 명의 시대가 왔다. 대한간호협회[1]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62년 최초의 남자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이후 2016년 1만 명을 넘은 후 불과 4년 만인 2020년 2만 1천 42명으로 2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2020년 기준 간호 대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2만 4천 58명으로 전체 간호 대 재학생인 10만 7천 649명의 22.4%에 달해[2] 다섯 명 중 한 명은 남학생으로 향후 남자간호사의 급속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관찰되는데 미국 노동통계국[3]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 등록된 간호사의 12% 이상이 남성으로 남성의 간호직 진출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간호사의 증가 원인으로는 사회적으로 직업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이 유연해지고, 간호 전문성에 대한 사회 인식 확대로 성 고정관념을 벗어나 소신 있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4]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환자 인구의 증가와 그로 인한 의료시설의 증가 및 헬스 케어 관련 시장 확대로 간호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5] 취업과 직업의 안정성 등이 보장되는 간호직의 특성이 부각되어 간호사에 지원하는 남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남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근무 중으로 파악된 남자간호사는 전체 남자간호사의 29.7%인 2,207명에 불과하며 이직률이 여자간호사보다 두 배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6]. 남자간호사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는 기대와는 다른 열악한 근로조건 및 낮은 보수,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연장근무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7] 여초 집단에서 불거지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한 갈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8].

성 고정관념이란 성과 연관하여 잘 변하지 않는 비교적 고정된 사고와 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9] 남자간호사가 임상 실무에서 유발되는 성 고정관념으로는 일부 간호에서 배제되는 행위, 의료진의 거부, 간호 제공 시 환자의 불편감 호소, 여성에 비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선입견 등이 해당된다[10]. 이직의 원인 중 임상실무에서 유발되는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게 한정적으로 유발되는 갈등상황으로 지속적인 남자간호사의 유입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자간호사의 특성, 인식, 성 고정관념, 직무만족도,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이 보고되었다[4,11-13]. 또한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에 대한 연구가 질적 연구로 제시되어 있으나[14-16] 남자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수술실, 마취회복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특수부서에서의 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부서는 고유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응급상황이 빈번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일반 병동에 비해 신규 간호사의 독립된 업무수행을 위해 더 많은 교육시간을 요구하고 엄격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회복실의 직무는 마취업무와 회복업무로 구분되는데 마취업무에서 진료직과 역할 구분이 모호한 특성이 있는 전담간호사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부서와 전담간호사의 특성을 반영한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적응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무 현장에 있는 그들의 관점과 언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에서의 삶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살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이 간호 실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종합병원 회복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간호현장에서 체험한 경험을 확인하고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구조와 의미를 밝히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회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자간호사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Colaizzi의 6단계 방법을 이용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표본추출의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함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간호사로 병원에 입사 후 간호업무에

적응하는 기간을 1년으로 고려하여[15], 임상경력 만 1년 이상의 회복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 대상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후 참여를 수락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6명이었고, 면담 당시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1세, 근무경력은 평균 26.7개월이었다.

2.3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전에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 목적, 면담 내용 녹음, 연구 참여 중단 가능 및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면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언제라도 중단 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였고, 면담으로 인해 좋지 않은 기억이 회상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원내 직원 심리치료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다.

2.4 연구자의 민감성 확보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성인간호학 전공자로 종합병원 회복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였고, 워크숍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 면담기법과 자료 분석 방법을 훈련받았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질적 연구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수에게 지도를 받으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2.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05월부터 2021년 0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은 반 구조적 개방적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면담 횟수는 참여자 별 1회로 하였고, 필요시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가 될 때 까지 면담을 시행하였다.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66.3분이었다. 면담 장소는 주위의 방해받지 않는 공간에서 시행하였고,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은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하였는데 연구 질문은 '회복실에서 남자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적응한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면담의 주 질문은 '남자간호사로서 회복실 적응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라고 시작하면서 부가적 질문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요?'. '병원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병원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런 경험을 통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은 어떠했나요?' 등의 반구조적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경험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였다. 면담 중 참여자의 행동, 얼굴표정, 무의식적 행동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주의 깊게 관찰했으며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녹음 내용은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 중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추가면담을 시행하였다.

2.6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방법은 Colaizzi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묶어 초점을 맞춘 방식이며 경험의 진술을 재 진술하며 공통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남자간호사들의 종합병원 적응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적합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구체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 시 녹음한 내용과 메모에 기록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전반적 상황에 대한 느낌과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둘째, 기록된 내용을 읽어 보며 참여자의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나 구절을 추출한다. 셋째, 참여자의 진술에서 추출된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의미를 부여한다. 넷째, 참여자들의 일반적 진술(significant meanings)을 주제(theme), 주제모음(theme cluster), 범주화(category)하는 과정에서, 범주화된 주제들이 원 자료와 의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분석한다. 다섯째, 분석된 자료를 주제, 주제모음, 범주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한다. 여섯째,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연관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적인 기술을 한다. 일곱째, 본 연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연구자가 분석한 내용이 참여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2.7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Lincoln & Guba(1985)에 의해 제시된 4가지 기준 즉 신뢰성, 전이가능성, 의존가능성, 확증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였다. 신뢰성(Credibility)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면담 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

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가 주변 환경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조용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후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은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회복실 간호사로 하여 본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공통 경험을 도출하고 연구결과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의존가능성(Dependability)은 반복 연구 시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간호학과 교수로부터 구성 및 자료 분석 등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은 연구 결과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회복실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는 판단중지(epoche)와 괄호 치기(bracketing)를 활용하여 확증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 6명의 참여자로부터 얻은 원 자료에서 21개의 주제, 9개의 주제모음,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남자간호사들이 회복실에서 적응한 경험은 '간호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의 자리매김'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1).

3.1 범주1. 간호의 길에 들어섬

주제모음1.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의 길에 들어섬

'가족과 지인들의 기대와 격려 속에 피는 설레임', '직업을 넘어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으로 느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간호사를 선택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의 존중과 격려, 부러움을 받았으며 학교 교육과 간호사를 바라보는 주변의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취업이 잘 되고 전문직이라서 제가 직접 선택했어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은 처음부터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참여자 1)

"저희 학교에서 간호학과 간 남자는 저밖에 없었는데 워낙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서 이상하게 본 친구는 없었고 많이들 부러워했어요. 요즘 나이 또래에서는 남자간호사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학교에서 간호학과를 가장 많이 밀어주는 느낌이었고 다른 과 친구들도 부러워했어요. 과장에 학교 이름보다 NURSING이라는 학과이름을 더 크게 새겨 넣었으니까요." (참여자4)

3.2 범주2. 현실의 장벽에 부딪힘

주제모음1. 남자간호사의 편견에 대한 불편함

'남자간호사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불쾌감', '일반화와 의도적 배려에서 오는 자존감 저하'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부서 내에서 남자간호사는 느리고, 꼼꼼하지 않고, 섬세함이 부족하고, 다중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편견에 공공연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의도적 배려는 참여자의 자존감을 저하시키고 감정을 위축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남자는 여자보다 기대치가 낮다는 말을 들었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여자가 실수했던 거보다 그럴 수 있지 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남자간호사는 그럴 수 있지..' 라는 표현이 '남자가 그렇지 뭐..'로 들리기 때문에 배려 받는 느낌보다는 여자동기에 비해 평가자체를 낮게 받는 느낌이었어요." (참여자2)

"남자는 잘 빠뜨리고, 실수도 많고, 일도 느리게 배운다.. 이런 말을 제가 있는데서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기분 좋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참여자4)

주제모음2. 위계적 부서문화에서 위축감을 느낌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함.', '선배 앞에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함',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을 들어 수치스러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선배로부터 배우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비난, 공격적 언행, 업무적 기회박탈, 처벌성 과제 등의 인격적 모독을 경험하였고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에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표현하였다.

"이게 이렇게 휘몰아 칠 일인가.. 과장된 리액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짜증도 나고 수치심도 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사소하지만 그 리액션은 공개처형

Table 1.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of Experience of Male Nurses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Beginning my career in nursing	I proudly began my career in nursing	Being encouraged and inspired by family and friends
		Having professional pride beyond profession
Facing difficult reality	Discomfort about stereotypes against male nurses	Discomfort of being called a male nurse
		Reduced self-esteem resulting from generation
	Feeling intimidated by hierarchial office culture	Enduring various hardships in apprenticeship training system
		Loss of confidence by comparison with experienced workers
		Feeling ashamed for being reproached in public place
	Experiencing conflict outside of work	Conducting a battle of nerves from interdepartmental conflicts
		Suffering the harmful effects of rumors and gossip
Striving to survive	Struggling to get over myself	Making daily reflection by wring everyday mistakes
		Standing firm in a painful effort to be an independent worker
	Mind control by placing myself in the flow of time	Getting better and better everyday
		Feeling secure in a familiar environment
	Relying on experienced workers	Gratitude to seniors for their ever-present help
		Being motivated by compliments from seniors
		Appreciating male seniors for being together
	Finding my own breakthrough	Being consoled by comradeship between peer groups
		Making time for myself and hobbies after work
	Full adjustment in the workplace	Simply being called a nurse
Fully harmonized with colleagues		

이었으니까요...”(참여자3)

“제가 잘못하면 차라리 정확하게 지적하고 혼을 내면 더 좋을 거 같은데 말을 안 하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한 다든가 이러면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 자기표현이 없고 늘 부정적인 선배는 의사소통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힘들어서 일하기 힘들어요.”(참여자5)

주제모음3. 업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함

‘부서와 직종 간 갈등으로 신경전을 벌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돌아 구설수에 오름’, ‘서툰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에서 오는 억울함’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병원은 다양한 직종과 직군이 모인 극도의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서 부서 내 업무와 문화 적응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타 직종, 타 부서와의 갈등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소한 언행이 여자간호사보다 더 집중되며 의사소통이 서툴러서 많은 오해가 유발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였다.

“마취과 의사와의 기싸움도 힘들어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저희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시간마다 약물 주는 거, 소변 체크하는 거, 장비 만지는 거... 모든 것이 신경전이에요. 특히 여자 의사들...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요.”(참여자1)

“여초니까 말조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실은 만남의 장이자 대화의 장이니까 소문도 나고 와전도 될 수 있고.. 저희끼리는 입조심이 중요 인제사항이예요”(참여자6)

“남자동기 중 **는 여자에 비해 자기 이야기를 못해서 오히려 훨씬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액팅 아웃을 하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일을 흘리고 서투른 건 사실이지만 자기표현이 약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참여자2)

3.3 범주3. 살아남기 위한 인간됨

주제모음1. 나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임

‘실수노트를 작성하며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봄’, ‘외롭고 위태로운 홀로서기에서 나 자신을 다잡아 봄’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갈등의 원인은 외부의 요인이 많지만 중국에는 철저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표현하였다. 반복되는 실수에서 오는 자괴감, 독립 후 쏟아지는 관심과 집중 속에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학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매일 퇴

근해서 실수노트를 썼어요. 그 날 하루를 돌아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써보고, 반성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1)

“프리젠테이션이 끝나고 독립했을 때 처음에는 흥가분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약물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를 한 번 내고는 모든 것이 리셋 되는 느낌... 구멍투성이인 느낌...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컸어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작용한 거 같아요. 그걸 이겨내기 까지 시간이 걸린 거 같아요.”(참여자3)

주제모음2. 시간이라는 명약을 통한 마음 다독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짐’, ‘익숙해진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경험에 노출됨으로 업무적, 관계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고 표현하였다.

“항상 제일 불안하고 궁금했던 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였어요.. 그 때 수선생님이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저를 그냥 위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뜻을 알겠어요.”(참여자1)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는데 손이 따로 움직여요. 마음처럼 되지를 않고. 이론과 많은 경험이 쌓여 천천히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실감했죠.”

주제모음 3. 선배에게 의지함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선배에 대한 고마움’, ‘무심히 던진 선배의 칭찬에서 동기부여가 됨’.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남자선배에 대한 고마움’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미숙한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고 잘한 것은 인정해 주며 놓친 업무는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선배들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브닝 할 때 사람이 적어서 엄청 다들 예민한데 어떤 선생님은 기다려 주시고 묵묵히 도와주시면서 지켜봐주세요. 칭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칭찬을 받은 것 보다 더 감사하고 위로가 됐던 거 같아요.”(참여자2)

“환자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근무시간 내내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환자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때 함께 일한 선배님이 잘했다고 무심히 던지는 칭찬을 듣고 날아갈 듯 했고 더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참여자6)

주제모음 4.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냄

‘전우애로 가득 찬 동기들의 다독임’, ‘퇴근 후 취미생활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가짐’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퇴근 후 병원의 무거운 스위치를 끄고 동기들과의 정서적 지지, 나만의 힐링 취미를 갖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동기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는 느낌이랄까... 저녁에 맥주 한 잔 하고 풋살도 하러 다니고.. 정말 의지가 됩니다.”(참여자4)

“울 해 들어서 손글씨 쓰는 거에 관심이 생겨서 캘리그래피를 최근 들어 시작했어요.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거 보고 따라 쓰고 그러면서 나름 힐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참여자2)

3.4 범주4. 부서에서 자리매김

주제모음1.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불림

‘온전한 한사람으로 인정받음에 대한 뿌듯함’, ‘동료들 속에 그림처럼 스며듦’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좌절을 극복하고 부서 내에서 도약을 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부서에서 동료로 인정받은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동료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참여자들 모두 그 시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 사람의 몫을 해 낼 때와 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라고 표현하였다.

“신규 때는 그러잖아요. 혼자서 1인분을 못한다고 0.5인분이라고 하잖아요. 뒤치다꺼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자기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 순간 사람들이 인정하고 결을 준 거 같아요.. 신규간호사도 남자간호사도 아닌 그냥 간호사로 말이죠...”(참여자1)

“변명하지 않고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선배들에게 신뢰를 준 거 같아요... 어느 순간 부서 선생님들 속에 편안하게 제가 같이 있더라고요..”(참여자2)

4. 논의

본 연구는 6명의 회복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

의 임상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된 연구로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한 결과 '간호의 길에 들어섬',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 '부서에서 자리매김'의 4가지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 적응 과정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범주1 '간호의 길에 들어섬'은 '자부심을 느끼며 간호의 길에 들어섬'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취업이 잘되고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간호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대학의 전문적인 지지와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며 자부심을 갖고 임상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업인으로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견해를 포괄한 신념[17]을 말하며 이것은 개인에게 직업적 만족감을 느끼고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간호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18]. 염은이 외[8]의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임[19]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재직 의도는 높고, 이직 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남자간호사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와 그에 따른 협회 차원의 정책도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병원차원의 인식 및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

범주2 '현실의 장벽에 부딪침'은 '남자간호사의 편견에 대한 불편함', '위계적 부서문화에서 위축감을 느낌', '업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함'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여초집단에서 간호사가 아닌 남자간호사로 불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자는 느리고, 꼼꼼하지 않고, 다중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반화와 남자인가 늦을 수 있다는 의도적 배려에서 자존감 저하를 경험하였다. 이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1년 미만의 신규 남자간호사는 호칭에 민감하고[20], 간호사가 아닌 남자간호사로 분류되고 호칭되는 것 자체를 차별로 인식하며[15], 성별의 특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적일 것이라고 인식하는 연구[21] 결과와 유사하며 남자간호사와 근무하는 여자 동료간호사의 경험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현장 적응에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의 개념은[21] 임상현장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한 여자간호사의

편견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낮아져[8] 직무만족은 낮아지고 이직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12,13].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9]. 따라서 남자간호사가 임상에서 느끼는 여자간호사가 표현하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일을 해야 하는 간호조직 내에서 높은 성 고정관념은 갈등의 소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 고정관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양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도제식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을 받는 등 위계적인 부서문화에 위축감을 표현했다. 이는 간호조직을 흑독한 군대조직으로 비유한 연구[22], 여성중심의 병동근무환경에 융화와 적응의 어려움을 군대에 재입대함에 비유한 연구[15], 동료 여자간호사로부터 지적이 자존감을 저하 시킨다는 연구[9]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남자간호사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마치고 병원에 입사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연차가 높은 여자 선배에게 업무를 배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나이 어린 여자간호사로 부터 지적이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은성 외[4]의 연구에서는 조직문화를 위계적 조직 체계로 지각하는 남자간호사들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고 보고된 바 있어 이는 간호부서의 수직적,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수평적, 자율적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부서 및 직종 간의 갈등, 서툰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구설수 등 업무 외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는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와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문제로 집단 내에서 이질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와[14], 남자간호사는 여자간호사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 수용하여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연구[23]와 일맥상통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수술실 내에는 다양한 부서와 직종이 공존하는 특성 때문에 대상자에게 각자의 전문성과 상호 협력을 요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24] 회복실 간호사는 마취 업무 수행 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여 역할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서와 직종 간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명확한 직무 기술을 통해 전문성 확대 및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범주3 ‘살아남기 위한 인간힘’은 ‘나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 사투를 벌임’, ‘시간이라는 명약을 통한 마음 다독임’, ‘선배에게 의지함’, ‘나만의 돌파구를 찾아냄’의 주제 모음으로 도출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갈등의 원인이 나를 둘러싼 외부의 요인이 많지만 중국에는 철저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통찰을 통해 남자간호사로 당당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연구[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물리적인 시간도 매우 중요한 적응 요소이며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진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가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지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표현한 질적 연구[23]와 근무경력이 길수록 조직몰입이 유의하게 높은 것[25-27]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부서 적응을 돕기 위한 노력으로 ‘기다림’이라는 이해와 배려의 부서문화와 프리셉터십 기간의 현실적 연장이라는 시스템 개선 등으로 남자간호사의 근무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선배와 존재만으로 든든한 남자선배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또한 그들의 칭찬은 동기부여의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수용[16]의 연구에서 동성직원은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며 버팀목이 된다고 하였고, 프리셉터의 공감정도는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28], 상사의 지지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13]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프리셉터 교육과정에 경청과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남자간호사들 간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의 적용 및 활용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돈독한 동기들과의 교류와 퇴근 후 취미생활을 갖는 등 병원의 스위치를 내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냄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본인만의 돌파구를 찾아냈다고 하였다. 동료지지만 조직 내 동료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포함한다[29]. 이는 황하만외[12] 연구에서 동료간호사들과의 상호작용이 직무만족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동료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 동료지지는 스트레스와 이직이도를 감

소시키고[27], 회복탄력성이 높으며, 직무에 대한 적응력과 성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3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적 연락을 자제하여 퇴근 후 시간을 존중하는 부서문화의 확산과 동기간의 부서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며 또한 힐링과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도 다각도의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범주4 ‘부서에서 자리매김’은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불림’의 주제 모음에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부서 내에서 적응이 되고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자리매김한 시점에 대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한 사람의 몫을 해 낼 때, 그들의 대화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때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간호사가 부서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 받을 때 존재감을 느낀 연구와[23] 팀 내 친밀감 확대가 재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31]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살펴보면 관리자는 남자간호사들의 진정한 독립시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한다. 다시 말해 프리셉터십 종료 이후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업무 완성도가 높아지며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회복실 남자간호사의 임상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4개의 범주, 9개의 주제모음, 21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회복실 남자간호사는 전문직 간호사라는 자부심을 느끼며 임상에 들어서지만 여전히 여초집단에서 다수 속의 소수로 존재하며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부서와 전담간호사의 특성이 공존하는 부서특성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한 위계적 조직문화와 부서 및 직종 간의 갈등, 여자 선배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남자간호사들은 외롭고 위태로운 임상에서 정착 이겨내야 할 대상은 본인 자신이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인 홀로서기에 임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에 편승하여 선배의 격려와 위로, 동기와의 유대감, 병원과 분리되는 나만의 시간 확보를 통해 부지불식간에 동료들 속에 스며들어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 부서에 자리

매김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남자간호사의 임상에서의 조화로운 상생을 위해 현실적인 임상적응 전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 고정관념과 성 역할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셋째, 성별을 떠나 존중과 배려가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구축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적극적인 고민을 행정가와 간호 관리자에게 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K. S. Jung. (2021). *3,504 males nurses were produced among those who passed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ection=61&idx=26851>.
- [2] E. Lee. (2121). *1 in 5 nursing students is a male student*. The JoongAng. www.joongang.co.kr/article/24008200.
- [3] U. 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https://www.bls.gov/cps/cpsaat11.htm>
- [4] E. S. An & S. K. Chu. (2011).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17(1), 22-32. DOI : 10.11111/jkana.2011.17.1.14.
- [5] S. Jedamzik. (2019). Digital health and nursing: The future is now. *Unfallchirurg*, 122, 670-675. DOI : 10.1007/s00113-019-0672-2
- [6] Korean Nurses Association. (2015). Male nursing students 10,000 people ages. *The Korean Nurses*. 52(2). 17-18.
- [7] H. S. Kim & J. S. Ahn. (2017). Turnover experienc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1), 25-38. DOI : 10.4040/jkan.2017.47.1.25
- [8] E. Y. Yeom & K. S. Seo. (2016).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nursing professionalism on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2), 794-804. DOI : 10.5392/JKCA.2016.16.12.794
- [9] K. J. Lee & M. Y. Kim. (2014).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1), 46-57. DOI : 10.7475/kjan.2014.26.1.46
- [10] Chen, S. H. et al. (2012).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rofessional empowerment, and nursing career development of male nurses: A cross-sectional analysis.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4(7), 862-882. DOI : 10.1177/0193945910384603
- [11] S. O. Kim & Y. H. Kang. (2016). A prediction model on the male nurses'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5), 585-594. DOI : 10.7475/kjan.2016.28.5.585.
- [12] H. M. Hwang & M. J. Kim.(2017).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32-41. DOI : 10.11111/jkana.2017.23.1.32.
- [13] J. H. Kang. (2018). Factors affecting social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5 (2), 175-183. DOI : 10.22705 /jkashcn.2018.25.2.175
- [14] H. M. Son, M. H. Koh, C. M. Kim, J. H. Moon & M. S. Lee.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17-25. DOI : 10.4040/jkan.2003.33.1.17.
- [15] J. H. Kim et al. (2016). An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at general nursing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496-506. DOI : 10.11111/ jkana.2016.22.5.496.
- [16] S. Y. Shin. (2018). *Clinical work experience of male nurse with career : a phenomenological study*.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Chung- Ang University, Seoul.
- [17]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8] D. Adams & B. K. Miller. (2001). Professionalism in nursing behaviors of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7(4), 203-210. DOI : 10.1053/jpnu.2001.25913
- [19] S. Y. Choi & M. A. Lee. (2018).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234-244. DOI : 10.11111/jkana.2018.24.3.234
- [20] E. S. Byun. (2009).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wly graduated nurses' intention to turnover and job stress/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21] Y. O. Suh & K. W. Lee. (2017). Female peer nurse's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mal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33-44.

DOI : 10.14370/jewnr.2017.23.1.33.

- [22] M. Y. Kim. (2009). An exploratory study of masculin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5 (2), 37-46.
- [23] J. Y. Hong, S. N. Kim, M. J. Ju & S. K. Son. (2016). The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6(3), 352-364.
DOI : 10.22650/JKCNR.2020.26.3.352.
- [24] Y. O. Jeoung et al. (2014). The handoff communication experience of nurses - focused on conten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n Communication in Healthcare*, 9(1), 61-71.
DOI : 10.15715/kjhcom.2014.9.1.61.24
- [25] Y. S. Choi. (2021). *A study on th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between new and experienced nurses-Focusing on male nurses in university hospitals*.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6] M. S. Park. (2021). *The Effects of male nurses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Pusan.
- [27] J. Y. Kim. (2016).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labor, burnout, socialsupport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 practitioners in terms of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31-342.
DOI : 10.14400/ JDC.2016.14.8.331.
- [28] S. K. Kim. (2021). *The effects of perceived preceptor's empathy and job stress on resilience in New Nurses*.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Pusan.
- [29] J. Y. Park. (2014). *A study on the effects of hospice volunteer'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exhaustion*. Master'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30] Y. H. Cho & M. Moon.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social support and knowledge creation and sharing.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15(1), 21-43.
- [31] D. Y. Lee & S. Y. Kim. (2020). The Influences of Grit, Emotional Labor and Organizational Intimacy on Nurses' Intention to Stay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Uni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3(2), 149-157.

박 성 주(Sung-Joo Park)

[장학원]



- 2012년 8월 :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20년 3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통증, 마취간호
- E-Mail : tuneinpc@chamc.co.kr

김 명 아(Myoung-Ah Kim)

[장학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02년 2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
- E-Mail : myungahk@cha.ac.kr